무왕과 함께하는 익산 문화재야행

미륵사지에서 여름밤을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루한 장마와 눅눅한 공기, 달군 양철 같은 불볕더위가 불쾌감을 한껏 끌어올린다. 그러다 밤이 되면 한결 선해진 바람과 은은한 달빛 아래서 즐기는 산책의 묘미는 한낮의 불청객을 말끔히 지워버리기에 충분하다.

밤이 아름다운 이 계절, 더욱 특별한 여름밤을 만끽하고 싶다면 천년 숨결 가득한 백제 왕궁으로 가보자!

'8夜' 문화재 체험으로 여름밤을 만끽하다

'2020 익산 문화재야행'이 7일부터 9일까지 백제왕궁(익산왕궁리유적)에서 개최된다. 이번 야행은 야경(夜景), 야로(夜路), 야사(夜史), 야화(夜畵), 야설(夜設), 야식(夜食), 야시(夜市), 야숙(夜宿)의 8개 주제를 통해 세계유산 및 문화재를 친근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익산 문화재 야행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왕궁리 오층석탑을 돌며 소원을 비는 '천년기원을 담은 탑돌이'와 소원등 날리기 행사인 '백제왕궁 달빛기원'는 물론, 백제 정원 앞에서 밤하늘 별자리를 관찰해보는 '야(夜)심한 밤별여행'과 백제이야기를 샌드아트 공연으로 즐기고 참여도 할 수 있는 '별궁달궁 모래동화', 홀로그램 체험박스를 통해 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는 '헤리티지 홀로그램' 등을 야심차게 선보인다.

미륵사지와 백제왕궁의 고즈넉한 야경을 감상하며 백제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익산 문화재야행은 매회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올해 3년차를 맞이했다. 또한, 백제왕궁(왕궁리유적) 및 10여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과 공연, 야간경관 등을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예술 행사로서 작년 문화재청 지정 우수야행에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야외에서 힐링하며 '안심야행'을 즐기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는 익산 문화재야행 개최를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며

왕궁리 오측석탑 돌며 소원 비는 천년기원 담은 탑돌이 등 선봬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방역수칙 준수 '안심야행'으로 진행

조심스럽게 준비를 마쳤다.

시는 이번 야행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방역지침 준수를 가장 최우선으로 뒀다. 우선 행사장 출입구를 다섯 곳으로 제한하고 각 출입구에 방역소를 설치하였으며, 방역소에서 원광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안내를 받아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이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또는 서명부를 작성하고 소독기를 통과하여 배부되는 건강상태 확인 팔찌를 착용한 관람객에 한해서만 입장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 지역에서 여전히 코로나19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사전예약을 대폭 확대하고, 행사장 내 먹거리를 축소하여 관람객의 밀집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전문방역업체가 행사장 곳곳을 지속적으로 방역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로나19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넓은 야외에서 힐링할 수 있는 가족관광형으로 진행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안심관광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야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경관조형물 일부를 하계휴가 기간 중 지속 운영해 시민들이 올여름 휴가를 지역에서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단 올 여름 장마가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행사 당일 우천 시 체험 및 공연이 일부 축소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낭만은 끝나지 않는다

27일부터 3주동안 무주산골영화제 '오프라인 시즌 2' 새롭게 시작

무주 · 서울에서 관객들과 '동행'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온/오프라인 분산 개최'를 선언하고, 6월 7일 온라인 라이브 방송 및 경쟁부문 시상식과 함께 '온라인 시즌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약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오는 27일부터 약 3주간에 걸쳐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 '오프라인 시즌 2'를 새롭게 시작한다.

지난 6월 초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가게 될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 시즌 2'는 영화제를 직접 즐기지 못해 많이 아쉬웠을 관객들을 위해 다시 새롭고 흥미로운 즐길거리로 '무주'와 '서울'에서 직접 관객들을 만나게 된다.

먼저 27일부터 30일까지 총 4일간은 무주 설천면에 위치한 전 세계 태권도인의 문화교류 공간인 '태권도원'에서 '무주산골영화제 시즌 2'를 즐길 수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현대적이면서도 넓은 공간을 활용한 야외상영장 1곳, 실내 상영관 2곳, 키즈스테이지 1곳에서 '판', '락', '숲', '길' 섹션 주요 상영작과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키즈스테이지' 상영작까지 총 60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이와 함께 태권도원,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준비한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산골영화제 시즌2 포스터

이번 행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영화 관람 환경 조성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00%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1인당 일일 이용권 1매(1만원)를 구입하면 당일 영화제 입장 및 지정 상영관 내 영화들을 모두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태권도원 입장 시에는 발열 체크와 문진표 등록을 진행하고, 모든 행사장 내 철저한 방역을 기본으로 '좌석 간 거리두기'를 적용해 관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무주산골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어 9월부터는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 시즌2가 서울에서도 진행된다. 오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총 4일 동안 서울극장에서는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의 한국장편경쟁부문 '창' 섹션 10편과 해외 다큐 4편을 모두 만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올해의 '넥스트 액터' 배우 고아성의 대표작 3편 상영을 비롯 고아성 배우와 백은하 연구소장이 함께 하는 스페셜 토크가 진행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고아성 배우의 소장품과 화보, 특별 영상 등을 만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 '우리의 고아성은 어디까지 왔을까' 역시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총 3일간 서울아트시네마에서는 '무주 셀렉트 : 동시대 시네아스트-켈리 라이카트' 특별전이 진행되어 시네필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길 위에서 미국의 풍경을 담아온 아메리칸 시네아스트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접하기 어려웠던 수작 6편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로, 영화 상영 후에는 국내의 대표 영화평론가들과 영화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산골토크가 이어진다.

그리고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무주산골영화관의 재개관 일정에 맞추어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무주 군민들을 위해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엄선한 한국 영화 총 8편을 무료로 상영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학인당에서 공연하고 있는 모습.

'전주한옥마을에서 하루 더'

시, 29일까지 '여름밤 한옥 정원 콘서트' 운영

문화포럼 나니레 등 참여 퓨전국악 등 선보여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정원이 잘 가꿔진 한옥 체험업소에서 한여름 밤을 즐길 수 있는 전통공연을 펼친다.

시는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 저녁마다 한옥마을 내 한옥체험업 8개소에서 총 32회에 걸쳐 '여름밤 한옥 정원 콘서트'를 시범 운영한다. 이는 전주한옥마을 여행객들에게 정원을 보유한 개성 있는 한옥 숙박시설을 소개하고, 전주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전주에서 하루 더 머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마당이 넓은 한옥체험업소를 선정했으며, 여행객들이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연시간 동안 개방키로 했다.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의 경우 △풍남헌 △삼락헌 △전주한옥마당 △사랑루에서 진행된다. 이어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동락원 △한지꿀잠 △이오당 △하늘기와에서 계속된다.

이번 공연에는 문화포럼 나니레와 이희정 밴드, 이상욱 밴드가 참여해 전통 민요와 퓨전국악, 국악인이 부르는 드라마 OST, 국악트롯, 국악가요, 판소리 등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 감각을 입힌 음악들을 선보이게 된다. 시는 사전예약 접수를 통해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운영할 방침이다.

향후 시는 한옥 정원 콘서트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전주한옥마을 인증제와 연계해 인증을 받은 한옥체험업을 중심으로 한 상설공연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태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한옥 정원에서의 공연은 여행객들에게 뜻깊은 여름밤의 추억을 제공해 의미 있는 전주 여행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지친 여행객들이 이번 한옥 정원 콘서트를 통해 위로받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한옥마을 여름밤 한옥 정원 콘서트와 관련된 세부 일정은 전주한옥마을 홈페이지(hanok.jeon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8일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서 '한내뜰 여름밤 콘서트'

'여름밤 콘서트' 마지막 회차로 트로트 · 오카리나 연주 등 공연 다채

완주 삼례에서 음악으로 힐링을 전달한다.

완주군은 삼례 한내뜰 여름밤의 콘서트가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에 삼례문화예술촌에서 개최된다고 6일 밝혔다.

여름밤 콘서트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해 3주간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마지막 회차인 8일에는 트로트, 국악, 오카리나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트로트와 자연소리를 꼭 닮은 오카리나 연주, 국악 공연은 한 달 여간 이어졌던 장마로 울적해진 마음을 달래기 충분할 것이다.

지난 25일(1회차)에는 사물놀이와 김광석 노래모음, 8월 1일(2회차)에는 빛소리합창단과 가수 박희수의 공연이 진행돼 많은 박수를 받았다.

공연을 관람한 삼례주민은 "코로나19로 인해 영화나 공연 등 문화활동이 적어 아쉬웠는데 동네에서 좋은 공연들을 접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공연은 안전한 관람을 위해 주출입구로만 통행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체크 및 출입자대장 작성, 선착순 50명으로 관람객 수 제한 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저녁 7시부터 선착순 50명 입장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문화관광과(063-290-261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3주간의 공연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비하면서도 주민 및 관광객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